

# numbers 제 61호



## 주요 내용

2020. 08.28

1. 이번 주 주제 : [일반 국민의 개신교인 인식]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2.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체중 증가 했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기독교 통계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천지부터 시작해 최근 사랑제일교회까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언론에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개신교 신자들과 교회들이 언론의 타겟이 되어 여과없이 그 부정적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냉소적인 비난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던가? 최근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 싸늘한데,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등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 아프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61호는 코로나 시대에 일반 국민이 현재의 개신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냉철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아울러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미국인의 미국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인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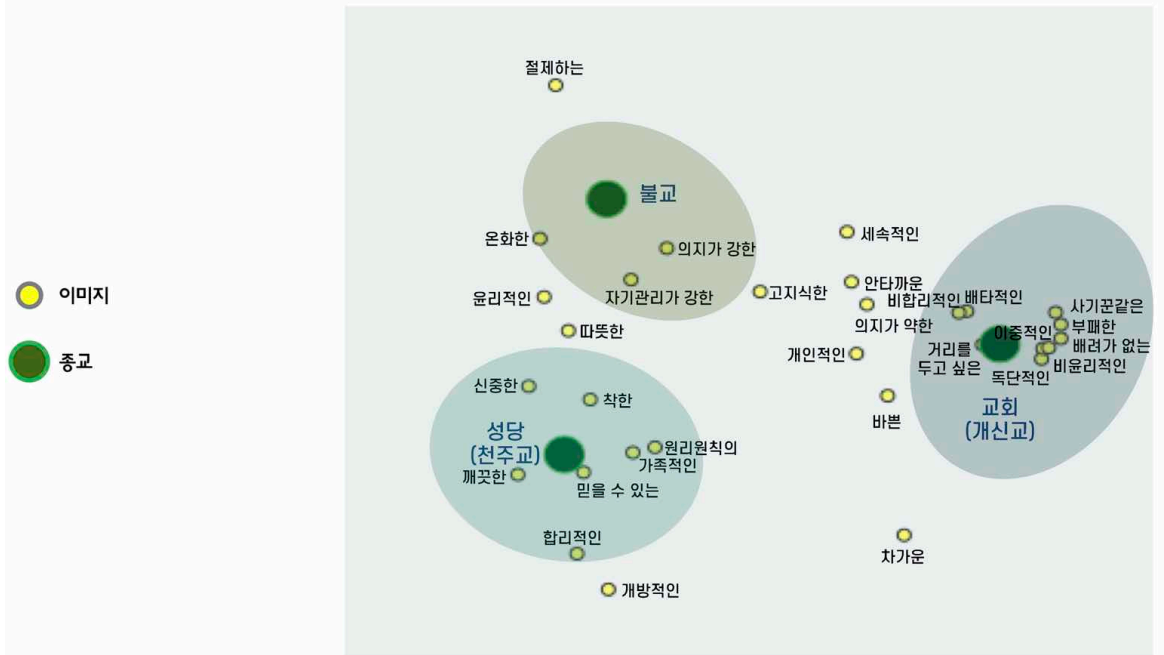
-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 ‘온화한’, ‘절제적인’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같은’ 29%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중복 응답)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조사 시점 : 코로나19 확진자가 28~51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기간임(참조:<https://livecorona.co.kr/>)

[그림]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Map(MCA ;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MCA : 비교 대상과 이미지(속성)간의 2차원적 거리로, 가까이 있을수록 해당 이미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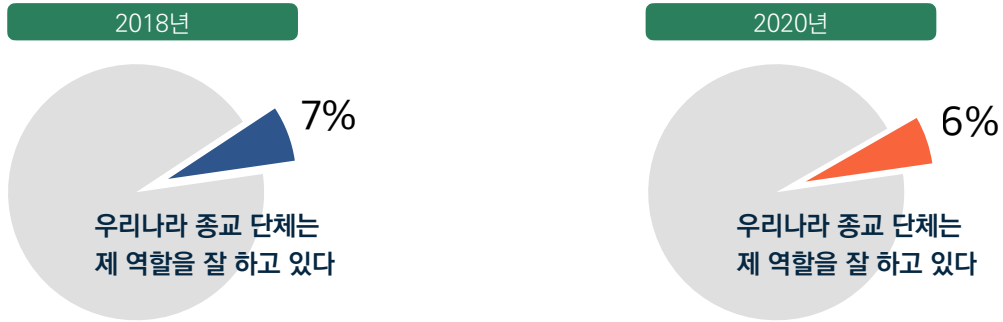
2



## 우리나라 종교 단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6%

- 종교가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지 6%에 지나지 않아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좋지 않음을 보여줌

[그림] 우리나라 종교 단체, ‘제 역할 잘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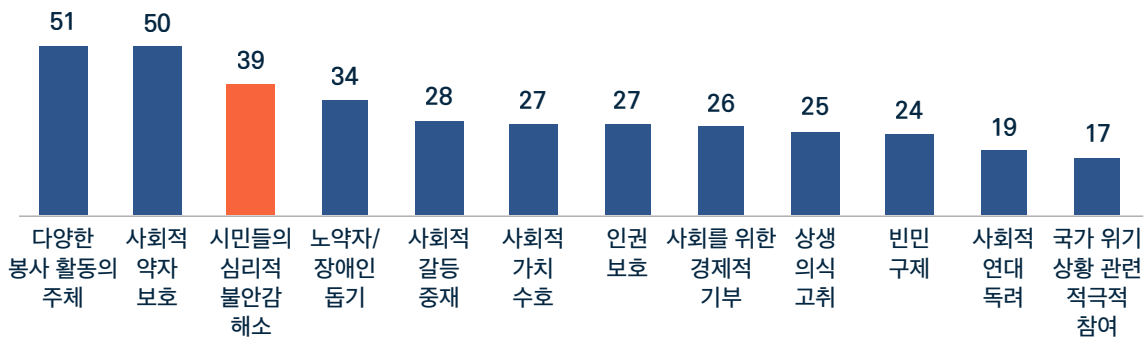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 우리 국민이 원하는 2020년 종교의 역할은, ‘봉사 활동’ 등의 종교 본연의 기능 외에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역할 요구!

- 우리 국민이 원하는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 51%, ‘사회적 약자 보호’ 50%,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39% 등의 순으로, 봉사/구제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의 기능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사회적 갈등 중재’ 28%, ‘사회적 가치 수호’ 27%, ‘경제적 기부’ 26%, ‘사회적 연대 독려’ 19% 등 대 사회적 기능은 구제/봉사 역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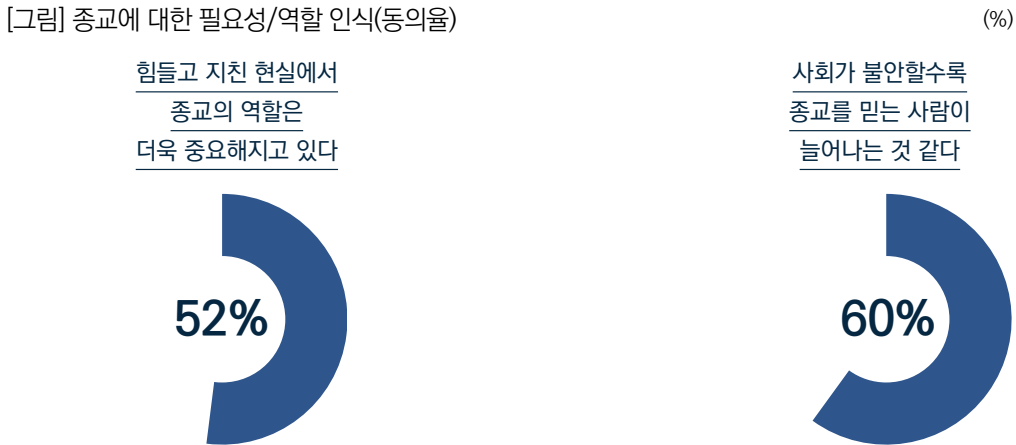
[그림] 우리 사회 종교의 역할(중복 응답) (%)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 국민 2명 중 1명,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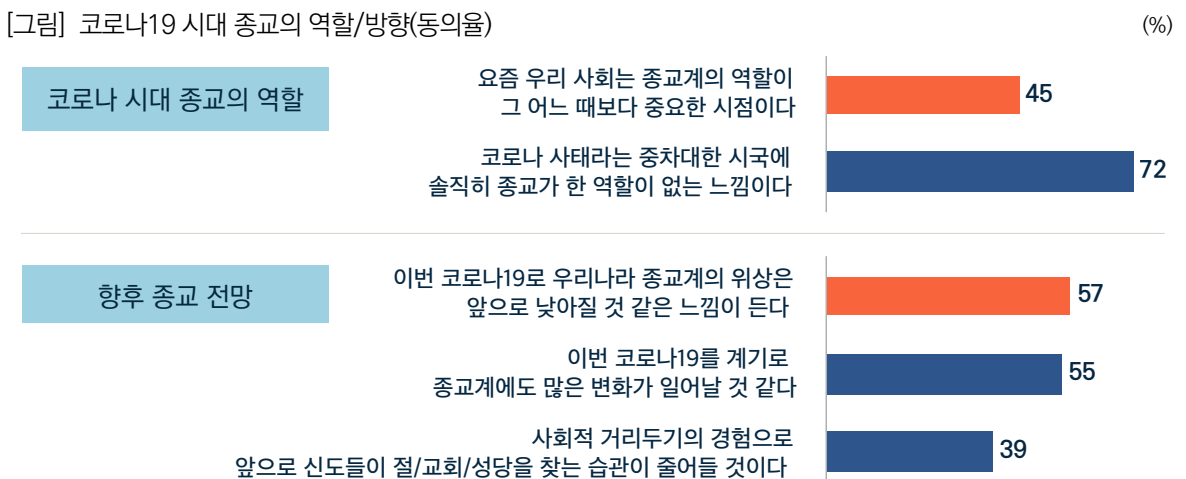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52%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응답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은 60%로 국민 5명 중 3명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종교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함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제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 ● 국민의 절반 가까이(45%),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관련 종교계의 역할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이 높지만, 그래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45%)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종교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55%)이라고 전망하면서, 상당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으로 신도들이 종교 시설을 찾는 습관이 줄어들 것(39%)이라고 예상함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제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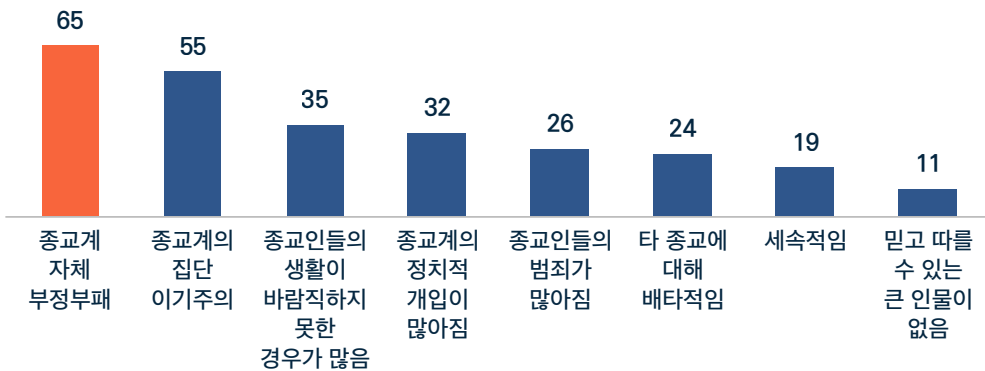


##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 65%, '집단 이기주의' 55%

-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 65%, '집단 이기주의' 55%,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생활' 35% 등의 순으로 지적했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종교 조사 결과와 달리 '집단 이기주의'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꼽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종교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으로 보임

[그림]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중복 응답)

(%)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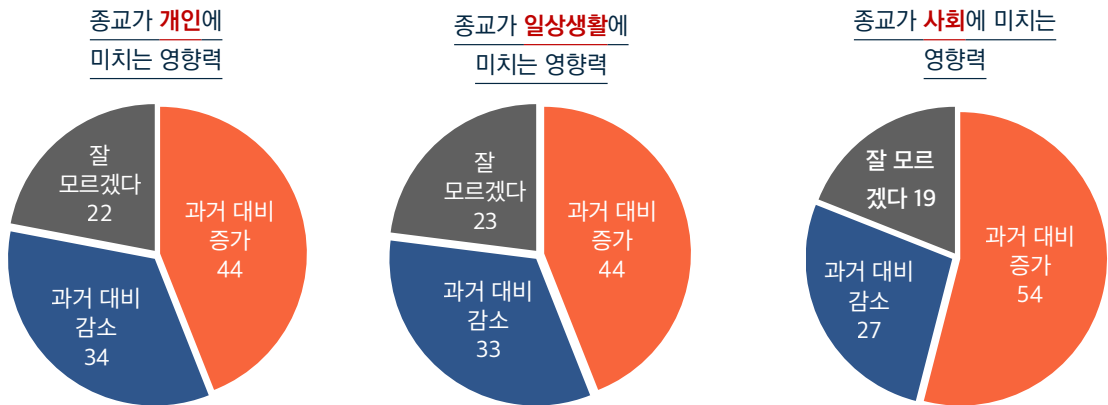


## 그러나,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증가!

- 과거 대비 종교의 영향력을 개인/일상생활/사회 각각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세 영역 모두 과거 대비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 사회 영향력에서 과거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이 54%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았음

[그림] 과거 대비 종교 영향력 평가

(%)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07.17.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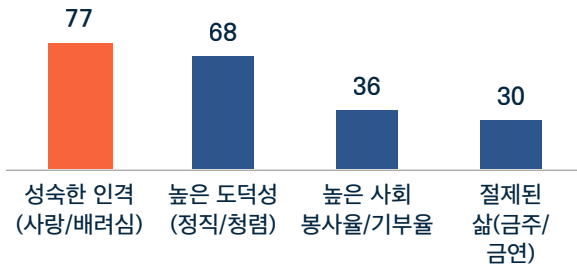


###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

- 1위 : '성숙한 인격' 77%,
- 2위 : '높은 도덕성' 68%,
- 3위 : '높은 사회 봉사율/기부율' 36%

- 우리 국민에게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성숙한 인격'(사랑/배려심) 이 77%로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높은 도덕성'(정직/청렴) 68%, '높은 사회 봉사율/기부율' 36%, '절제된 삶'(금주/금연) 30% 등의 순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을 종교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음

[그림]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2019.06.26.  
(전국 만14이상 남녀, 4,971명, 온라인 조사, 2020.06.23.~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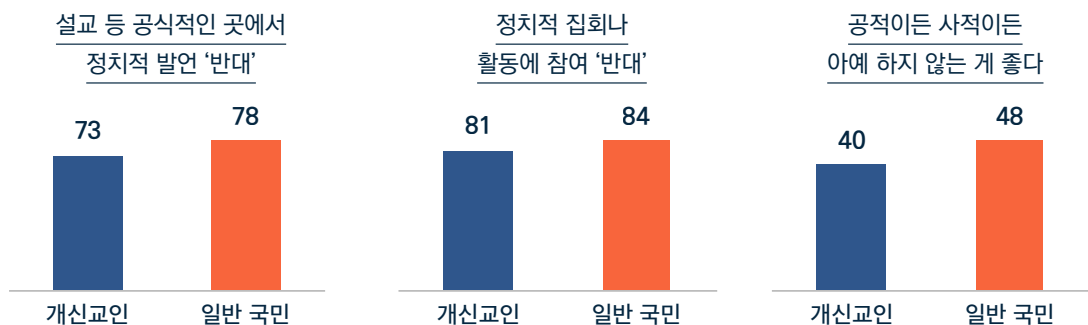


###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신교인 의견

-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 반대 73%
-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 반대 81%

- 개신교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 개신교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73%가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는 정치적 집회나 활동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보다는 일반 국민이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반대의견이 약간 더 높음

[그림] 개신교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 (%)



\*자료 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20.01.20.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조사, 2020.01.09~11)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 2019년 미국 18세 이상의 성인 6,364명(퓨리서치 패널)을 대상으로 정치 문제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 인식을 조사하여 ‘Americans Have Positive View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 but Want It Out of Politics’라는 제목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국 개신교인의 조사 결과와 비교 자료로서 의미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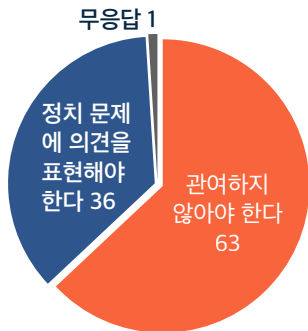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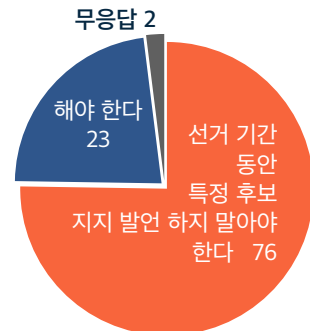
## 미국인 5명 중 3명 이상(63%), ‘교회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 퓨리서치가 미국인에게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국인의 5명 중 3명 이상(63%)이 ‘교회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미국인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교회의 정치 문제 관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회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 76%로 응답하여 미국인 4명 중 3명 정도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명확히 선을 긋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교회의 정치 문제 관여에 대한 의견 (%)



[그림] 교회의 선거 기간 특정 후보 지지 발언에 대한 의견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American Have Positive View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 but Want It Out of Politics’, 2019.11.15 (미 전역, 18세 이상 남녀 6,364명, 웹 설문 조사, 2019.3.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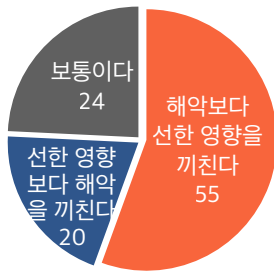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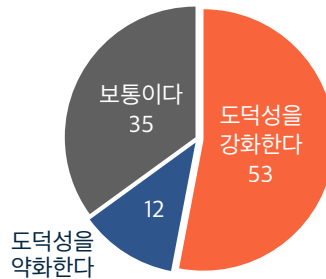
## 미국인 절반 이상(55%) ‘교회가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교회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질문한 결과, ‘해악보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55%, ‘선한 영향력보다 해악을 끼치고 있다’ 20%, ‘보통이다’ 24%로 응답해, 교회가 미국 사회에 부정보다 긍정적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회의 미국 도덕성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도덕성을 강화한다’고(53%)로 응답하였고, ‘도덕성을 약화한다’는 12%로 교회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미국인들은 ‘교회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한다’ 50%, ‘교회는 사람을 갈라놓는다’ 21%, ‘둘 다 아니다’ 29%로 응답하여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교회가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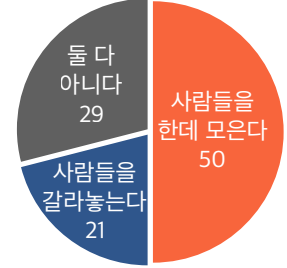
[그림] 교회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 (%)



[그림] 교회가 미국 사회 도덕성에 끼치는 영향 (%)



[그림] 교회가 미국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American Have Positive View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 but Want It Out of Politics’, 2019.11.15 (미 전역, 18세 이상 남녀 6,364명, 웹 설문 조사, 2019.3.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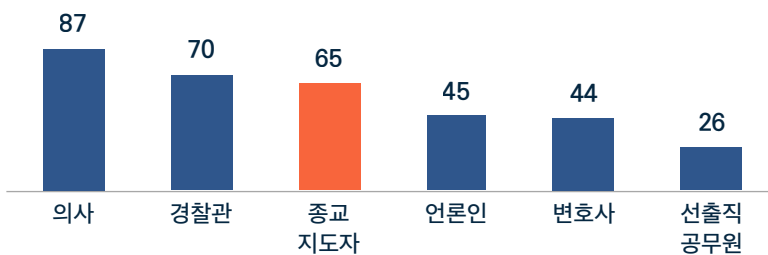
9



## 미국인 3명 중 2명 가량(65%) ‘미국의 종교 지도자는 높은 윤리 기준을 지니고 있다’

- 미국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국인의 3명 중 2명 정도 (65%)가 종교 지도자가 ‘높은 윤리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여러 직업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의사’ 87%, ‘경찰관’ 70%, ‘언론인’ 45%, ‘변호사’ 44%, ‘선출직 공무원’ 26% 순으로 응답해, 미국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상이한 인식을 나타냄

[그림] 주요 미국의 전문가별 윤리 수준 평가(‘윤리 기준이 높다’ 비율\*) (%)



\*자료 출처 : Pew Research Center, ‘American Have Positive View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 but Want It Out of Politics’, 2019.11.15 (미 전역, 18세 이상 남녀 6,364명, 웹 설문 조사, 2019.3.18~4.1)

\*\*‘높다’는 ‘매우’와 ‘높은 편’의 합한 수치임



## 시사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청원글이다. 이 글이 주는 충격은 놀라웠다. ‘기독교인으로 \*\*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것이 죄송하다니...’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한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게시판에 동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서 미안한 감정이 폭 넓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신뢰도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 32%만이 신뢰한다고 해서 충격을 주었다.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종교로서 기독교가 겨우 32%만 신뢰한다는 사실로부터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난받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드러나면서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참 퍼져 나가던 4월 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70%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독교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고 한다(넘버스 51호 참조). 그런데 이번 [넘버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1위)로 ‘거리를 두고 싶은’(32%)이 꼽혔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교회가 단지 나쁜 이미지, 못 믿을 존재를 넘어서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 존재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종교는 사람 간 접촉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접촉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이 종교인데, 사람들로부터 기피를 당하면 종교로서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게 된다. 특별히 부도덕한 사람이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에 더 많이 몰린 것도 아닐텐데, 개신교의 가르침이 비도덕적인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집단이기 주의 그리고 최근 사랑제일교회 문제,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 일부 개신교 교회, 신자들의 일탈 행위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희생양(Scape Goat)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는 것은 언론도 정부도 방역당국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마치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들어있는 쇠젓가락이 굴절되어 보이듯이 언론을 통해 비치는 교회의 모습에 대중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략적으로는 일부 일탈하는 교회와 선을 긋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설득해서 방역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들의 인식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던 우리 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이 기회에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불안과 우울 속에 지내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던져주는 역할이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에 던져진 과제이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체중 증가 했다'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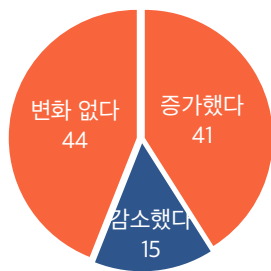
1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체중 증가 했다' 41%

- 조사 전문 기관 톨리언프로가 코로나19 이후 본인의 체중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체중 증가했다' 41%, '감소했다' 15%, '변화 없다' 44%로 응답해 국민 5명 중 2명 정도가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만과 관련,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관적 비만 인식 정도를 질문했는데 그 결과, '나는 살찐다'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61%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이후 일반국민의 체중 증감 인식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 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그림] 주관적 비만 인식도\*\*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 올바른 문제 인식이 중요', 2018.11.22. (전국, 만 19세 이상 2017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2,040명, 전화설문조사, 2018.6.01.-15)  
 \*\*'살찐다' = '매우 살찐다'와 '살찐 편이다'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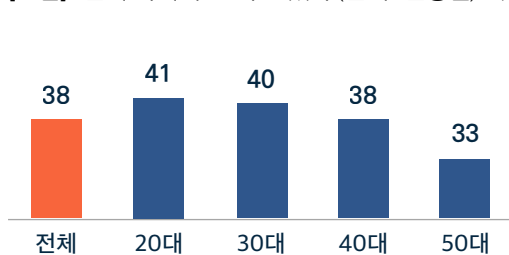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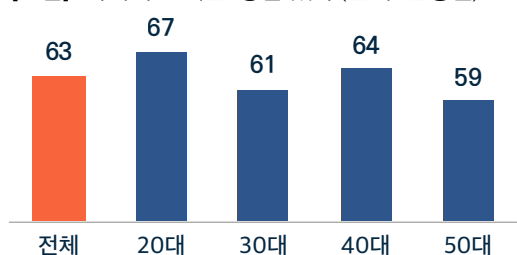
## 다이어트, '현재 하고 있다' 38%

-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는 응답이 38%로 우리 국민 5명 중 2명 가까이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가 41%로 가장 높음('20대' 41%, '30대' 40%, '40대' 38%, '50대' 33%)
- 다이어트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 가량(63%)이 '다이어트 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비율과 동일하게 20대 연령층이 67%로 가장 높음('20대' 67%, '30대' 61%, '40대' 64%, '50대' 59%)

[그림] 현재 다이어트 '하고 있다'(전체+연령별) (%)



[그림] 다이어트 해본 '경험 있다'(전체+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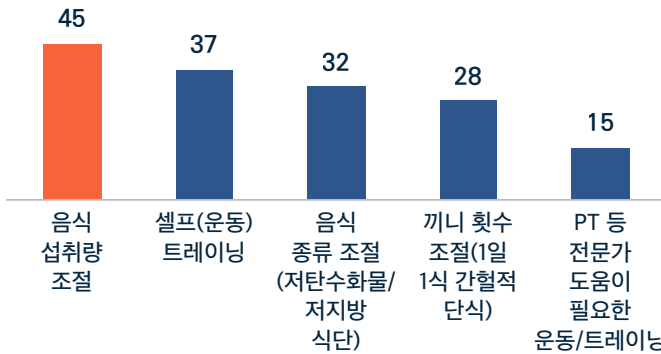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 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 ● 다이어트 방식 1위, ‘음식 섭취량 조절’ 45%

-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이어트 방식으로는 ‘음식 섭취량 조절’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셀프(운동) 트레이닝’ 37%, ‘음식 종류 조절’(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32%, ‘끼니 횟수 조절’(1일 1식 간헐적 단식) 28%, ‘PT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운동/트레이닝’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음식 조절과 운동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현재 다이어트 실행 중인 방법(중복 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SM C&C 킬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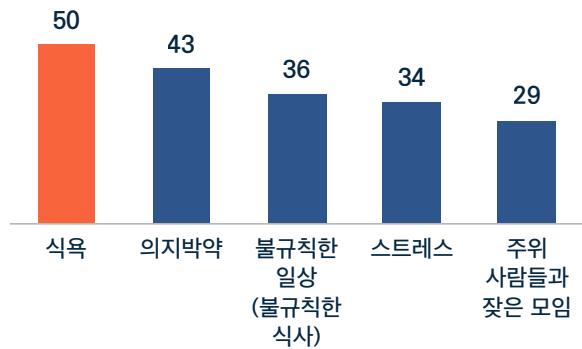
### 다이어트, ‘실패한 적 있다’ 71%

- 다이어트 해본 사람에게 다이어트 실패 경험을 물어본 결과, ‘다이어트 실패 한 경험 있다’ 71%로 응답함
- 실패 이유로는 ‘식욕’ 50%, 그 다음으로 ‘의지박약’ 43%, ‘불규칙한 일상’(불규칙한 식사) 36%, ‘스트레스’ 34%, ‘주위 사람들과 잦은 모임’ 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다이어트 실패 경험률



[그림] 다이어트 실패 경험 이유(중복 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SM C&C 킬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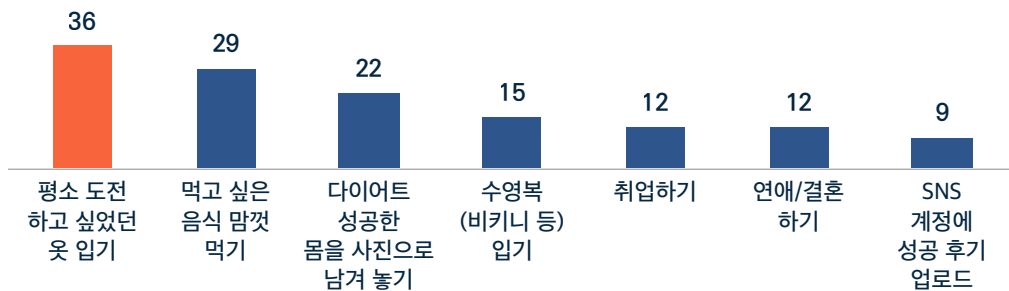
4



## 다이어트 성공 후 하고 싶은 일, 1위 '평소 도전하고 싶은 옷 입기'

- 다이어트 성공 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를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중복 응답) '평소 도전하고 싶은 옷 입기'가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 맘껏 먹기' (29%), '다이어트로 성공한 몸을 사진으로 남겨놓기' 22%, '수영복(비키니) 입기' 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이어트 성공 후 하고 싶은 일로 '도전하고 싶은 옷 입기'가 1위로 응답된 것은 변화된 체형을 통해 평소 도전하고 싶었던 Fit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다이어트 성공 후 하고 싶은 일 (상위 7위) (%)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 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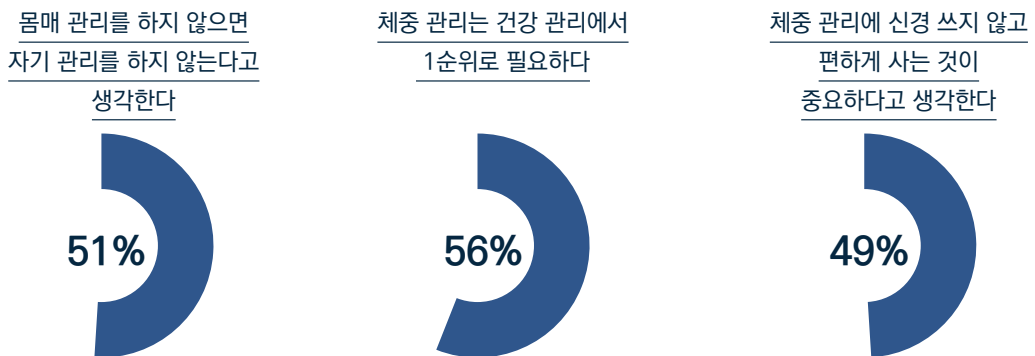
5



## '자기 관리=몸매 관리' 51%

- 우리 국민 절반 가량(51%)이 '몸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몸매 관리가 곧 자기 관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체중 관리가 건강 관리에서 1순위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절반 이상(56%)이나 돼, 몸매 관리,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체중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49%나 돼, 체중 관리가 주는 부담감보다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인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그렇다\*\*' 응답) (%)



\*자료 출처 : SM C&C 톨리언프로, '다이어트는 왜 항상 내일부터 일까?', 2020.08.24. (전국 20-59세 남녀, 928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0.8.19.)

\*\*'그렇다'=매우+약간 그렇다 수치임



#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코로나 탓? 인터넷 중독 청소년 늘었다](#)

세계일보\_2020.08.25.

[코로나19사태, 직장인 유연근무제 2019 22% --> 2020년 36% 1년사이 급증](#)

경향신문\_2020.08.24.

[줄잇는 예약취소·재택근무... 8월 3째주 골목상권 전주대비 매출 하락률 두배](#)

한겨레\_2020.08.26.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음악 공연 피해 현황](#)

세계일보\_2020.08.24.

사회 일반

[상반기 출생아 14만2천명 역대 최소...2분기 합계출산율 0.84명](#)

연합뉴스\_2020.08.26.

['가짜뉴스' 흉수.. 국민 10명 중 2명만 '뉴스 신뢰한다'](#)

세계일보\_2020.08.22.

[직장인이 원하는 새직업\(이직\) 1순위 "공무원"](#)

조선일보\_2020.08.24.

경제 · 기타

[1인 가구...2분기 소득·지출 다 줄었다](#)

경향신문\_2020.08.23.

[종교집회 자제 권고에 "개신교인 57.2% '종교자유' 침해 아냐"](#)

연합뉴스\_2020.08.26.

큐레이션

[포스트 코로나, 직장파 집의 미래 모습](#)

BBC News 코리아\_2020.08.21.

[기후 변화의 증인들](#)

경향신문\_2020.08.25

[한국의 행복도 순위](#)

중앙일보\_2020.08.22.

[리더십 : 리더의 자신편향성 의사결정 극복 방법](#)

매일경제\_2020.08.27.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 금주 신규 후원자 | 아이소이 (주)자연인(화장품 기업)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